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늘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모세가 애굽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왕궁에까지 퍼졌어요. 바로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였어요.

모세는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애굽 병정들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모세는 그곳에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이제 자신이 애굽의 멋진 왕자님이었던 것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도 점점 다 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는 너무나 두려워서 얼드려 얼굴을 가렸어요.

“모세야,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라!” 모세는 그 말씀을 듣자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말 잘 하는 형 아론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애굽 나라의 왕 바로에게 갔어요. 모세는 바로 왕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싶어서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욱 힘든 일들을 시키고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재앙을 애굽 나라에 내리셨어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어둠 재앙..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 나라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모두 죽었어요.

바로 왕의 첫째 아들도 죽었어요.

바로 왕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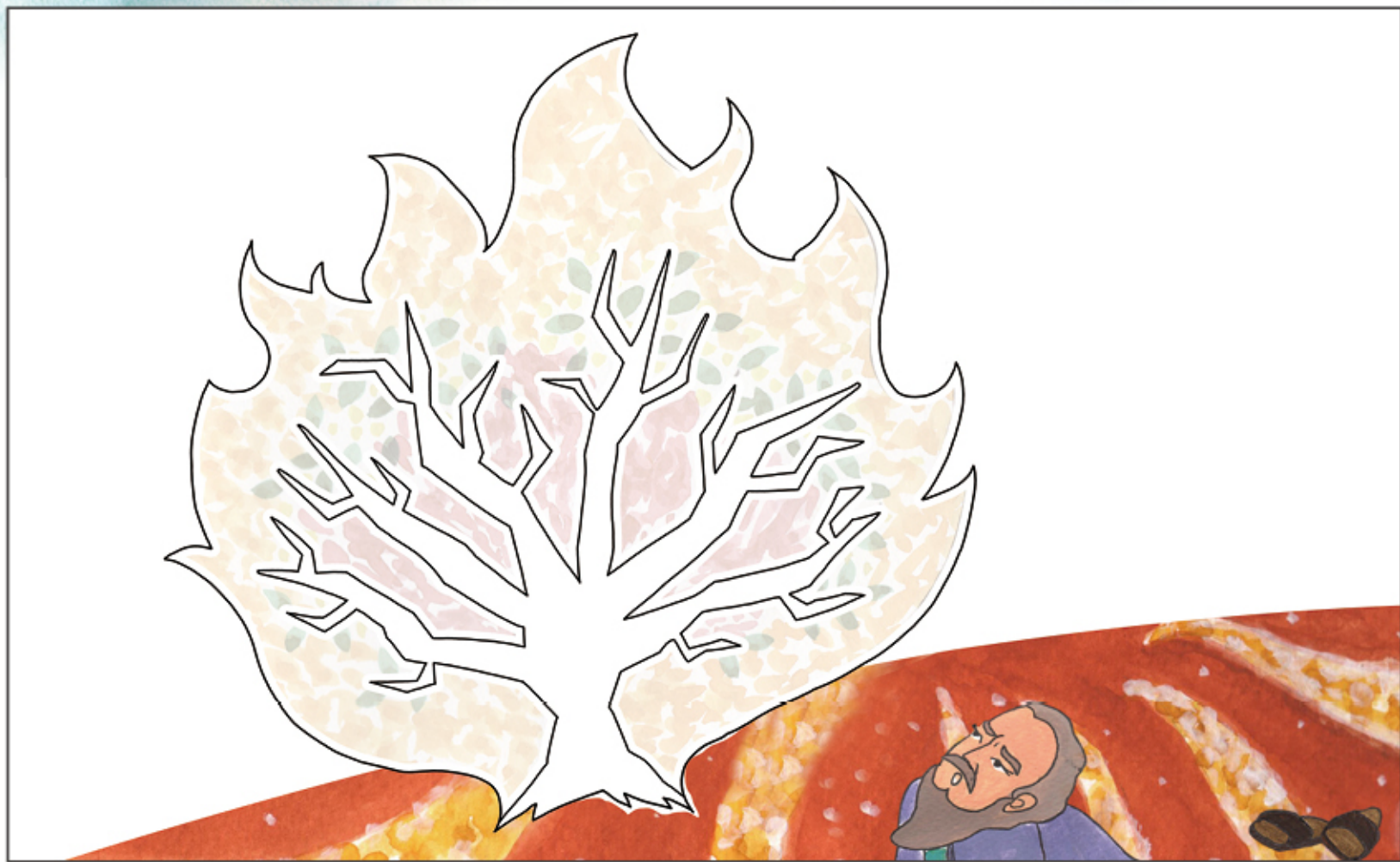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하세요 (출애굽기 3:10)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활동 1.

색종이를 손으로 찢어 붙여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들어 보세요. (준비물: 색종이, 풀)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